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펼쳐

한국농어촌공사 박진성 | 등록 2026.07.14 19:39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대상 화장실 개보수·주거환경 개선
직원 11명 참여해 샷시 설치와 주변 환경정리까지 실시
"나눔 실천으로 농촌 복지 향상에 지속 기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지사장 임문희)는 7월 14일 구례군 구례읍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찾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시계 및 달력**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다솜동지복지재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농어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구례지사 직원 11명이 참여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과 우풍을 막기 위한 외부 샷시 신규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주택 주변 환경정리와 생활환경 개선 활동도 함께 실시하며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

임문희 구례지사는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장년층 노후자격증 무료교육

2026

강의를 부담 없이! 배워보고 싶은 자격증,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박진성 s9611006@hanmail.net

Copyright © HONAMTODAY.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